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 선포식 개최

자비와 지혜가 활짝 피어 풍성한 결실이 맺기를 발원하며...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은 5월 2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는 오랜 식민통치와 기아, 부족 간 분쟁, 끊이지 않는 전염병, 높은 문맹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교육·문화·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 사람들이 척박한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여 빈곤의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아프리카에는 인간답게 살아갈 생활환경이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배움의 터전인 학교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프리카의 학교 건립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여법하게 파종 되고 활짝 꽃피워 풍성한 결실

을 맺도록 정성을 기울이자”며 오늘의 발원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포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김영목 이사장은 “탄자니아 학교 건립을 계기로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어둠에서 빛을, 그리고 꿈을’ 선물하게 됐다. 아름다운동행의 탄자니아 농업학교 건립 프로젝트는 그 땅에 무한한 가치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4월 우리절 주지 동봉스님과 성다고은씨로부터 기증받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경제수도)의 토지 94,600m²에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2년제 농업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양성교육을 통해 빈곤을 스스로 퇴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업학교 운영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교육·문화·복지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자립역량 강화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선포식을 시작으로 교계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 아프리카 페스티벌,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한 108Day 등 다양한 모금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교계에서의 미진했던 아프리카 구호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글_아름다운동행 이세민 기획개발팀장 02-737-9595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① 선포식 ②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 인사말 ③ KOICA 김영목 이사장 축사 ④ (사)홍법문화재단 이사장 정우스님은 아프리카 학교건립에 세달라며 3천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한국불교, 세계 참여 종교인과 소통하다

지난해 늦가을 한 통의 메일이 뉴욕에서 날아왔다.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경일 씨였다. 정 박사는(최근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주치가 돼 2013년 봄 ‘국제 불교·기독교 컨퍼런스-깨달음과 해방; 참여불교인과 해방신학자의 대화’를 열 예정이라며 도법스님을 공식 초청한다는 소식을 전

해 왔다. 한 차례 영국을 다녀온 것 외에 해외 경험은 거의 없는 도법스님은 처음엔 많이 주저하셨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국의 참여 불교, 그리고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 화쟁위원회 등의 사업을 국제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라고 설득 드리자 어렵게 승낙하셨다. 이렇게 해서 도법스님의 뉴욕 방문 준

비가 시작됐다.

4월 16일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잡아타고 곧바로 브로드웨이에 있는 유니온으로 향했다. 차창을 통해 본 뉴욕 풍경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마천루가 하늘을 찌를 듯이 키 재기 싸움을 하는 도시로 생각했는데, 뉴욕은 아주 오래되고 낮은 건물들이 적절한 공간을 차지하며 안정감 있게 자리 잡은 낡은 도시였다. 유니온대학 역시 지은 지 백 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웅장한 석조 건물이었다. 6층 높이의 건물이 ㅁ자 형으로 이어졌고 그 안에 작지만, 짜임새 있게 꾸민 캠퍼스가 자리 잡았다.

도법스님과 일행은 유니온대학 내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열두 시간 넘게 강행군이 이어지는 컨퍼런스에 발표자나 토론 패널로 또는 참석자로 참여했다. 컨퍼런스의 키워드는 ‘고통(suffering)’이었다. 경제적 격차, 전쟁과 폭력, 성, 인종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고통에 대해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세

계적 종교인들의 경험과 지혜 속에서 연찬됐다. 도법스님은 19일 참여불교 동서양의 대화 토론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고 ‘나의 불교수행, 화엄세계관과 생명평화운동’이란 타이틀로 대중연설도 했다. 주로 한국의 선불교 전통만을 기억하고 경험한 참석자들에게 화엄경의 인드라망 세계관, 본래 부처와 동체대비로 집약되는 대승불교, 참여불교사상을 연설하니 다소 생경한 것이라 느끼면서도 매우 흥미롭고 새롭다는 반응들이었다. 종단의 화쟁위원회, 자성과쇄신결사 활동과 생명평화운동도 소개했다. 20일엔 한국인 참석자들이 뜻을 모아 한바탕 생명평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폴 니터(유니온신학대학원 석좌교수), 율리히 두흐로프(하이델베르크 석좌교수),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헤민스님(뉴햄프셔대 교수) 등과의 언론대담도 잇달아 진행됐다. 컨퍼런스 일정을 마친 뒤 미국 주요사찰 방문 및 종교지도자 면담이 이뤄졌다.

▶ 2면으로 이어짐

국제선센터, 틱낫한 스님과 플럼빌리지 법사단 초청

마음 챙김 수행의 날 데일리 템플스테이(Day of Mindfulness) 진행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스님)와 BTN 불교TV(대표이사 성우스님)는 지난 5월 12일(일) 국제선센터에서 500명의 대중을 대상으로 틱낫한 스님과 플럼빌리지 법사단의 마음 챙김 수행의 날 데일리 템플스테이(Day of Mindfulness)를 진행했다.

마음챙김 수행의 날 프로그램(이하 D.O.M)은 플럼빌리지의 대표적인 수행프로그램으로 틱낫한 스님의 5가지 마음 챙김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1일 프로그램이다. D.O.M은 △틱낫한 스님의 법문 △경기 명상 △이완 명상 △그룹 활동 △법과 마음 나눔(그룹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참가자를 총 3그룹으로 나누었다.

틱낫한 스님의 법문과 경기 명상에는 모든 참가자가 참석하였고, 이완 명상과 법과 마음 나눔 프로그램은 7층 금차선원, B1 바라밀실 등에서 그룹별로 나눠 진행하였다.

일산에서 참석한 대학생 이희경씨(38)는 “멈춤에 대해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매 순간 멈춤의 평화를 체험할 기회를 가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과전에서 참석한 성현숙씨(48)는 “호흡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점검했던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했고, 대학생 최서영씨(23)는 “차가 없는 학생들에게 도심에서 마음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영적인 오아시스’로 불리는 플럼빌리지는 틱낫한 스님이 1982년 프랑스 보르도 근교에 만든 평화 명상 공동체이다.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소로 플럼빌리지에서는 틱낫한 스님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수행이 여름과 겨울에 각각 한 달가량 열린다.

글_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국제국 국제주임 김용태

www.seoncenter.or.kr



국제포교사회, 외국인 시티투어로 휴식과 공감의 한마당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에서는 지난 5월 25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의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족 91명과 세계 각국의 유학생 39명 등 130명이 참가했다.

시티투어는 봉은사에서 입재식과 함께 봉은사 전각 소개 및 점심공양을 하고, 잠실선착장에서 유럽선에 승선하여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60년 동안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둘러보았다. 또한, 덕수궁을 방문하여 근세조선의 궁궐 모습과 열강 속의 한국 역사를 관람하고,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쟁과 위기 극복의 역사를 관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용산 가족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화합과 작별의 장을 가졌다.

특히 용산 가족공원에서는 찬불가타그룹 『메타』가 출연하여 우리나라 찬불가와 팝송, 가요 등을 불러 언어와 문화가 다른 모든 참가자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어서 한 참가자는 “가족과 친지를 멀리 떠나 한국에 살면서 고향이 그

리웠다. 하지만 오늘은 일상의 삶을 떠나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휴식과 공감의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회장 권영구 국제포교사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적극 원하여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에서는 올가을에도 아시아 각국의 근로자나 다문화가족 등이 참가하여 운동경기와 함께 문화를 교류하는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는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참가하여 열린 경연과 화합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글_ 국제포교사회 이병두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① 입재식에서 봉은사 포교국장 진경스님의 기념품(영주) 전달식(봉은사 미륵대불 앞) ② 금강산도 식후경, 공양시간(봉은사 후원) ③ 화합과 작별의 장(용산 가족공원) ④ 포즈를 취하는 유학생들(한강 유람선)



[틱낫한 스님 소개]

● **釋一行, Thich Nhat Hanh(1926~)** 1926년 베트남 중부에서 태어났으며, 우연히 사진 속 스님의 모습을 보고 것처럼 평화로워지기 위해 16살 때인 1942년 선불교에 입문해 승려가 되었다. 24세 무렵 베트남 최대의 불교연구센터인 인광(An Quang) 불교연구원을 설립했고, 56년도에 베트남불교도회의 주관을 맡아 활동하다가 61년경 미국 프린스턴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했다.

● **자비를 실천하는 참여 불교의 주창자** 내세론에 기댄 기존 불교의 빚장을 열고, 불교사상의 사회적 실천과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은 “참여 불교(engaged Buddhism) 운동”을 주창하고, 어디든지 찾아가 불교의 자비로 민중의 고통을 덜어 주는 실천적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 **평화를 노래하는 살아있는 부처** 베트남전 때는 세계를 돌며 반전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난민을 돕기 위한 사회청년봉사학교를 열어 활동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귀국 금지 조치를 당한 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하였다. 1976~77년 해상난민 구제활동을 펼쳤으며, 1982년 프랑스 보르도 근교에 명상공동체인 ‘플럼 빌리지(Plum village)’를 세워 평화 및 참여 불교 운동을 전개했다. 1990년에는 미국 버몬트주에 승원(禪院) ‘단풍림’과 수행원 ‘그린 마운틴’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세계 각국을 오가며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읽다** 1980년대 초에 그가 세운 플럼빌리지는 기독교와 불교, 비구와 비구니, 인종과 계층의 차별 없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다. 대화와 관용으로 서로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현대인의 삶에서 종교가 이바지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접현종 Order of Interbeing을 창종하였고, 연기(緣起)를 번역한 Interbeing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하라** 침묵이든, 찬송가나 명상을 통해서든,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때 우리는 자신보다 위대한 어떤 존재와 만나게 된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모든 현대인에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되짚게 하고,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995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였고, 88세의 고령임에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아파하지만, 해답을 얻고 행복하길 원하는 한국 국민에게 해답을 주고자 2013년 5월 한국을 또다시 방문했다.

▶ 1면에서 이어짐

뉴욕 원각사에서 일요일 법문을 진행했으며 뉴욕 불광선원을 방문해 미동부특별교구장인 휘광스님 등과 해외포교와 관련한 대담도 나눴다.

원불교의 미주 포교를 위한 명상 및 숙박 시설인 원달마센터, 천주교를 바탕으로 한 도농공동체인 제네시스 팜을 방문했고 △버룩 칼리지의 유대교와 가톨릭 교목 및 학생들과 면담 △힌두교 사원 겸 복지시설 방문 및 우마 미소레카 박사와 환담 △시크교 사원 방문 및 편집TV 언론 인터뷰 △뉴욕 유대교 커뮤니티 방문 △미국 조종과센터

(Interfaith Center) 레프 출레 브라이어 대표 환담 △9.11테러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 방문 영가 천도 의식 집전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아마도 한국 불교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지도자들을 만나고 종교공동체를 방문한 것은 최초가 아닌가 싶다.

이번 방미를 통해 세계적 종교 지도자들은 한국불교가 선불교의 전통과 함께 참여 불교란 또 하나의 기둥으로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다. 이런 국제적 공감대가 앞으로 더욱 확산되고 심화될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서원해 보았다.

글_ 백승권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국장)

태국 SEM 초청강연회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

지난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관 지하공연장에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주민과 현지 NGO 활동가들의 권한 강화 교육훈련과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태국 NGO SEM(Spirit in Education Movement) 초청강연회가 있었다.

강연회는 더프라이스, 로터스월드, COVIL, ODA Watch;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의 후원을 통해서 개최되었으며, 태국 SEM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에 대한 철학을 많은 단체와 공유할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다.

UN 보고서를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사회의 변화를 통한 발전에 공감하는 100여 명이 강연회에 참석했다.

강의 시작에 앞서 강연자인 SEM 활동가 쏜분 쏜쁘람쁘리(Somboon Chungpramree)는 침묵명상으로 사람들을 집중시켰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배우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 이외에도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개발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더



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다.

태국의 사회비평가이자 불교학자로서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락 시바락사(Sulak Sivaraksa)에 의해서 설립된 SEM은 교육을 사회변화에 가장 중점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영성적인 요소를 교육에 포함시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SEM은 불교의 팔정도를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하여 변화를 위한 핵심가치로 삼아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자신과 삶’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와 지역, 마을을 이해할 것인지, 참여적 행동을 수행할 것인지 생각하며, 불교, 기독교, 이슬람, 페미니즘, 녹색당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심층생태학을 이용하여 자연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강조점을 두고 갈등,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비폭력, 또한 가족으로서 사랑, 결혼, 성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과정도 있다.

SEM의 교육철학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참여적 워크숍에 녹아 들어있다. 태국에서는 연간 약 2,000명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70여개의 개발단체들이 연결되어 있고, 라오스에서는 스님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 이수 후 훈련생들은 교육, 미디어, 소득증대 프로젝트, 농업, 사무업무, 종교계, 정치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이후 실질적으로 지역 내 팀을 만들어 현지 사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역량강화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개인의 삶과 세계관에 대한 교육과 함께, SEM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권리를 이해하게 된 주민들의 네트워크 활동과 정책참여이다. 여러 훈련 프로그램 이외에

도 환경관련 이슈, 성 평등 문제, 다양한 집단에 대해 다루며 주민이 지역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는다.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만드는 태국 화학회사들이 미얀마에 무분별하게 이주하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미얀마 지역 주민들, 베트남 전쟁에 뿌려졌던 불발탄에 관한 책임을 묻으며, 피해주민을 돌보는 라오스 스님들이 일으키는 변화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SEM이 이렇듯 다양한 주제와 접근방법을 가지고 교육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개인의 성장’ ‘세계관’ ‘개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사람들의 변화를 주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에서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가족과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위한 음식, 교육을 비롯하여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공정하고 협동심이 살아있는 사회, 노동과 여가의 보장, 조화로운 자연 등이다. 강연에서 소개된 태국의 Puey Ungpakom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라는 에세이에서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무엇이 제공돼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내가 바라는 삶을 함께 이루는 길, 강연회를 통해 SEM의 활동을 공유한 분들이 함께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글_로터스월드 민정희 사무국장

2013년 정부지원 불교 NGO 단체 6곳 선정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중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부문에 6개의 불교단체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국제연꽃마을, 더프라이스, 위드아시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은 신규지원단체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기관들은 각각 4,000~7,000만원 내외의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며 네팔, 중국, 베트남 등 지구촌 곳곳에서 문화교류활동을 펼친다.

올해 처음 선정된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스님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히는 프레이벵주 프레이끄랑 마을에 교육문화복합센터 ‘드림나라’를 세운다. 예산 부족으로 예체능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어린이들에게 미술, 과학, 체육 교육을 진행한다. 도서관과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공동대표 영답스님)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2개 소학교에서 도서관 환경개선, 사서교사 초청연수, 한글도서 지원 등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독서교육 활성화와 조선족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더프라이스(이사장 법등스님)는 미얀마를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NGO 협의회와 함께 미얀마 활동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각국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현지 지역개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도 베트

남 광남성과 공동으로 광남성 탐키시에 어린이집 등 한국형 복지교육타운을 건립할 예정이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보조금을 받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도제스님)와 수년째 지원단체로 선정된 파라미타정소년연합회(회장 정여스님)는 의료진과 봉사단을 꾸려 네팔과 라오스 오지마을에서 의료봉사 및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한다.

금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유형 5가지는 작년 말 비영리민간단체·정부부처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공개한 것이다.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복지와 자원봉사·기부나눔 확산,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 건강한 사회와 시민의식 함양, 녹색성장과 자원(에너지) 절약,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이다.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부문에는 총 63개 단체를 뽑았다”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심사 및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위드아시아 상임이사 헤진스님은 “단체들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관이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불교 위상을 높이는 국제구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_ 편집부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세계일화’를 꿈꾸며

불기 2557(201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5월 12일 조계사 앞 우정국 일대에서 전통문화한마당이 펼쳐져 불교문화와 한국 전통문화를 내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렸다.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축제,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국제불교 체험, 전래놀이마당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에서 ‘세계일화’라는 커다란 화두를 가지고 ‘법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국제불교마당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나라의 고유 불교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모습들을 화보에 담아봤다. 글_ 편집부



1. 네팔 불자 모임 연등 행렬
2. 몽골 스님들의 법회
3. 히말라야 라마회 샌드만다라 시연
4. 법고체험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세계 곳곳에서 을 축하하는 봉축법회가 열렸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함께 하기 기원하며 사찰마다 환하게 연등을 밝혔다.

이 연등이 우리들의 무명을 깨치고 지혜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가정마다 그리고 사회 더 나아가 세계가 화목하고 안락하기를 발원했다.

나아가 우리 인간뿐 아니라, 불성을 지닌 모든 생명이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세상을 밝히는 즐거운 날이 되도록 기원했다.

국외 한국 사찰들의 봉축법회를 담아봤다.

◇보스턴 문수사

대한불교 조계종 보스턴 문수사(주지 혜각스님)는 지난 5월 12일 일요일 불교계 최대 행사인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문수사 대법당에서 150여 명의 불자와 함께 봉축법회를 가졌다. 이날 봉축법회에는 뉴잉글랜드한인회 한선우 회장 내외도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하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가 보스턴 한인 사회에 충만하길 기원하였다.

봉축행사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봉축행사, 육법 공양, 주지스님의 봉축사 그리고 한인회장의 인사말로 진행되었고 2부는 관욕의식, 3부는 저녁 예불 및 탑돌이 행사등을 들과 탑을 도는 행사로 이어졌다.

이날 봉축법회에서 도범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을 링컨과 케네디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링컨대통령은 1860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꼭 100년의 갭이 있었는데, 링컨대통령의 보좌관은 케네디였고 케네디 대통령의 보좌관은 링컨이었으며 링컨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이 시해되고 대통령 임기를 승계한 부통령은 모두 존슨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링컨대통령을 시해한 범인은 극장에서



총을 쏘고 창고로 도망을 갔으며, 케네디 대통령을 쏜 범인은 창고에서 저격하고 극장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51.6%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는 것은 달라이라마의 윤회설과 불교의 인과설로서만이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괘 보타낙가사

괘의 보타낙가사(주지 도휘스님)에서는 5월 19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 점등식을 갖고, 소박하게나마 떡과 국수를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남가주사원연합회

불기 2557년(2013) 5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LA 캠퍼스에서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회장 묘경스님) 주최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준비위원회 주관, 동국대학교 LA지부 협찬으로 남가주 사원연합회 봉축행사를 개최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불었지만 1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빛내 주었다.

1부 봉축법요식은 서래대학에 재학 중인 청강스님과 아진스님이 사회와 집전을 맡아주었다. 유남식 포교사 단장의 개회사

에 이어 5번의 타종으로 봉축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합창단과 대중이 삼귀의,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관불의식은 대표로 현일스님과 현철스님이 해주셨다. 곧바로 어린이 4명이 현일, 현철스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았으며, 육법 공양이 진행되었다.

관음사에 계시는 만성스님께서 모든 대중을 위해서 축원을. 정혜사 주지 석타스님이 종정스님 법어를 대독, 남가주 사원연합회 회장 묘경스님의 봉축사, 나란타 불교 아카데미 김소여 학장의 봉축 발원문, 동국대학교 LA 캠퍼스 서운교 총장님의 축사, 법왕사 주지 현일스님이 봉축 법어를 해주셨다. 2부 행사로는 이도영 연출자가 이끄는 바라밀다 합창단의 합창 등 문화 공연을

했다. 멀리 타향에서 동포들이 만나 법회를 봄으로써 느끼는 마음의 정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곳은 날씨에도 야외 정원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여법하게 봉축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내년에는 미리 준비하여 더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봉축 법요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글_ 고려사 주지 묘경스님



‘멈춤과 힐링’을 한국에 설하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계적 명상 지도자인 틱낫한 스님과 법사단 30여 명이 BTN의 주관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진행된 월정사에서 4박 5일 안거 프로그램에서 법사단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아침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틱낫한 스님은 법문 그리고 대중과의 질의 시간을 가지며 가르침을 설파하셨다. 빨리 빨리에 익숙해져 버린 한국 대중들에게 오대산 전나무 숲에서의 걷기 명상 그리고 공양을 하며 마음을 챙기는 수행 방법 등은 멈춤의 미학으로 다가왔고, 자신을 돌아보는 힐링의 시간으로 승화되었다. 특히 걷기 명상 도중 법사단이 들려준 숲속에서의 연주는 참석자들에게 눈물을 머금게 하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틱낫한 스님의 오랜 도반이신 천공 스님은 이완 명상을 통해 참석자에게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고, 법사님들은 5가지 마음 챙기기와 포살에 관한 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4박 5일 동안 배운 가르침과 5가지 마음 챙기기를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대중들의 엄숙한 서원과 함께 전등식을 끝으로 월정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 후, 틱낫한 스님과 법사단들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중앙 승가대학교에서 한국 스님들과의 만났다. 값지지만 때때로 많이 다른 서로의 수행과정을 틱낫한 스님의 법문, 질의 시간 그리고 그룹 달마 시간을 통해 서로 배우고 공감해 나갔고, 이 공감대는 예정에도 없는 즉석 어울림의 시간으로 이어져 언어와 수행 방법이 다른 불제자들이 하나 되는 순간으로 연출되었다. 이어서 부산 범어사에서 만여 명이 참석한 대중강연을 통해 틱낫한 스님은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마음을 챙기는 방법 그리고 남북한의

긴장을 슬기롭게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비의 법문을 하셨다.

이날 통역을 맡은 해민스님의 따뜻한 이 틱낫한 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더해 주셨다. 부산 일정에서 부산 흥법사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동자승들과의 만남은 법사단들에게 한국과 한국불교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후, 틱낫한 스님과 법사단들은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마음 챙김의 날을 갖고, 대중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일상에서의 수행법을 설파하셨다. 또한,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대중 강연에서는 예정보다 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멈춤과 호흡에서 나를 돌아보며 행복을 알아차리는 힐링을 전파하셨다. 틱낫한 스님과 천공 스님은 해민스님과 대담을 통해 한국 불자들에게 당부 말씀과 함께 한국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여정 중 틱낫한 스님과 대중과의 질의 시간에 한 보살님이 스님에게 물었다.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행복은 그리고 정토는 지금 여기 현재 있는 것입니다.”

글_ 영어통역자원봉사자 이정아



캐나다,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일로 공인

랍 포트 토론토시장은 5월 24일(금)을 토론토시의 ‘석가탄신기념일(Vesak Day: 남방 불교는 음력 4월8일이 아닌 4월15일)’로 공식 선포하고, 이를 토론토시 웹사이트(toronto.ca)에 올렸다. 석탄일을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포트 시장은 선포문에서 “1999년 유엔 총회를 통해 공인된 ‘베사데이’는 불교인들로 하여금 자비와 평화, 인간성에 대한 선의와 헌신의 메시지를 증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시의 석탄일 공인에는 온타리오 승가회(Sangha Council of Ontario Buddhist Ministry) 회장을 맡은 대각사 양일스님의 노력이 컸다. 양일스님은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처님오신날 공인은 전임 데이빗 밀러 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왔다”며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 불교가 화합, 상생, 나눔과 베품을 통해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승가회 산하의 캐나다불교인협의회

(Buddhist Council of Canada)는 올해 석탄일(5월 17일)을 앞두고 지난 5월 11일 온주의사당(퀸스파크)에서 불교계 계양식도 가졌다. 양일스님은 협의회 공동명예회장도 맡고 있다. 양일스님은 “내년부터는 석탄일 기념 행사를 더욱 크게 치를 수 있도록 7월경부터 승가회원들과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 25년 전 출범한 승가회의 회원스님은 200여 명. 승가회에는 중국과 베트남계 사찰이 각각 10여 개로 가장 많으며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티베트 등 50여 사찰이 소속돼 있다.

지난 84년 캐나다 생활을 시작한 양일스님은 영어를 익히기 위해 고교 3학년에 편입, 10대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한 뒤 조지브라운칼리지와 토론토대를 졸업했다. 식당 청소·신문 배달·택시 운전 등 온갖 굵은일을 하며 사찰 살림을 꾸려온 스님은 지난 30년간 토론토에서 전법과 포교를 실천해오고 있다.

출처_ 캐나다 한국일보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뉴욕 맨해튼 봉축 퍼레이드 개최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25회 국제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 행사가 5월 5일 맨해튼 유니온 14가 스캐어파크에서 불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가 주최하고 뉴욕불교국제봉축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예년에 비해 많은 한국을 비롯한 타 인종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했고, 청아사 중·고등부의 사물놀이, 무용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제등행렬을 했다. 동참한 사찰은 뉴욕에 있는 대관음



사, 불광선원, 연국사, 원각사, 청아사, 금강선원, 불광 한국문화학교와 뉴저지 원적사, 해안정사이다. 또한, 자리를 빛내준 외빈은 Rev. Compassion Chris Raines(President of the Buddhist Council of New York), Ven. Dr. T. Kenjitsu Nakagaki(Japan), Rev. Chloe Breyer(Executive Director of The Interfaith Center of New York), Ven. Hanchai Laepong 외 태국스님들, 무용가 박수연, 이송희, 소프라노 박소림, 김수진 등 많은 분이 함께했다.

글_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총무 문중스님

산호세 정원사, 처음으로 가진 야외 법석

정원사(주지 돈오스님)는 5월 12일에 있었던 부처님오신날 큰 행사를 마치고 야외에서 법석을 차렸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장기도를 해서 야외에서의 법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신도들의 의기충전과 단합을 위해 법석을 마련한 것이다.



장소는 Los Gatos에 위치한 바소나(VASONA COUNTRY PARK)로, 5월 26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모였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정원사 청년부원들은 바비큐 틀에 불을 지피고 어른들을 위한 점심준비에 분주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주어진 점심시간, 그야말로 며칠 동안 굶고 이날을 기다린 것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한 상 차린 밥상이 사라졌다.

점심을 마치고 나서 준비해온 선물을 가득 놓고 불교와 역사 그리고 정원사에 대한 퀴즈가 시작되었다. 정원사의 개원년은 1987년인데 모두 맞추기 어려웠다. 또한, 소소한 문제도 맞추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여 모두 즐거워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뽕뽕 뭉쳐 큰일을 해낸 주현이네는 아이 셋을 둔 부자집이다. 집안에서 싸우더라도 밖에 나오면 협동심을 발휘하여 서로 챙기고 아끼는 모습이 참 예쁘다. 고구려의 소수림왕을 맞추는 문제는 스마트 폰

으로 검색을 하는 등 현대적 방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퀴즈에 몰입하며 모두 싱글 병글했다.

그다음에는 간단한 게임이 시작되었다. 체리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체리씨 멀리 보내기 게임에 모두 열광을 했다. 남녀노소 합심하여 응원도 하고 요리도 피워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1등은 프레즌트에 사는 장정규 불자님이 차지하고, 2등은 정원사에서 원주소임을 사는 공덕행 보살님이 차지했다. 단체 선물과 상품으로 받은 선물까지 한가득, 아이들은 풍선도 하나씩 들고 행복해하며, 사홍서원을 끝으로 회향했다.

막혀있던 공간을 잠시 떠나 확 트인 야외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게임과 문제도 맞추는 야단법석은 모두 즐거운 법회였다. 끝으로 정원사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어린이 캠프를 할 예정이다.

글_ 정원사 총무 형전스님
산호세 정원사 +1-408-745-0123

아르헨티나 고려사, 세계일화가 되는 그날까지...

이 먼 곳 아르헨티나 고려사(주지 성제스님)까지 관심을 두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는 90% 이상 천주교인 국가이며, 한인 교민들은 많은 분이 교회에 나가십니다. 안타깝게도 한인교회는 50여 개인 반면 한국사찰은 한마음선원, 고려사 두 곳뿐입니다. 타 한국 교민사회와 비슷하겠지만, 교회를 나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 고려사도 부모님 세대는 절에 나오셔도 자식들은 성당,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한정된 공간 안에 한국 교민사회가 형성되어있고, 한정된 직업군으로 서로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성당이나 교회를 가야 한글도 배울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년이 되었지만, 방안에 비도 새고, 쥐 때문에 잠을 깨는 날도 빈번한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인이나 이곳에 관광 온 여러분께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사찰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고려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참선을 하고 6시부터 십분 간 저녁예불 그리고 7시까지는 차담 시간을 가집니다. 일요일은 교민 불자 대상으로 사시기도 및 불교 교리를 겸비한 법문을 하고 있고, 매달 초하루는 재아 한인노인 회관에 떡 공양을 하며, 매년 칠월칠석마다 경토잔치를 열어 재아교민들에게 효 사상을 상기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스님 혼자서 잘 살릴까 기도 및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로 선배 소임자 스님들도 한문학당도 하고, 다도교실 및 불교교리 강좌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르헨티나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지 않을까? 하루하루 발원합니다.

우리나라 지구 반 축 점인 너무 먼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고려사. 25년 동안 사월 초파일에 나오는 신도들을 빼면 스무 명 내외의 신도들과 함께 이곳을 꾸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법당 천장에서 모래알 먼지가 불상을 더럽혀도, 쥐들이 집안을 활개치며 다녀서 밤잠을 설쳐도, 갑자기 비가 내리면 방 천장에서 비가 주르륵 새어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재정난에 처해 있는 열악한 곳이라는 걸 이곳에 와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계속 노력하며 원을 세우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관심을 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조계종단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불모지일수록 종단적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또한 알게 모르게 불교에 관한 관심과 특히 현지인들의 명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참선법회에 참가하는 현지인들은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입니다. 세대의 폭이 넓어서 잘 알려지지만 한다면 고려사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를 알리는데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기회가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임자 스님들이 인연 있는 스님들의 소개에 의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지만, 어쩌면 그러했기에 절의 발전이 더디었다고 생각도 듭니다. 만약 종단 차원에서 해외 포교에 원력이 있는 스님을 최소 3명 정도 파견을 하고, 좋은 포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이미 뿌려진 불교 씨앗이 깊게 뿌리내려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꽃 피우는 건 시간문제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다시 한 번 관심 뒤주심에 감사드리며, 세계일화가 되는 그날까지 정진하겠습니다.

글_ 고려사 주지 성제스님
(국제불교학교 1기 졸업생)



〈제등행렬 후 단체사진〉

애틀랜타 전등사, 아이들의 꿈을 위한 여행



애틀랜타 전등사(주지 마야스님)에서는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멕시코 남동부 키타나로오 주에 있는 휴양도시 칸쿤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전등사 주지스님은 아이들의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2년에 한 번 씩 미국의 곳곳을 여행하였는데, 이번 여행은 학생 15

명, 스님 2분, 부모 11명이 다녀왔다. 출발에 앞서 부모님과 미팅에서 학생 서로 간에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알아 갔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들의 셀폰, 게임기 등 개인 용품의 휴대를 금지하기로 하고 여행을 출발했다.

첫째 날 호텔에서 짐을 풀 후, 개인 시간에는 포레끼리 어울려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며 재미있게 놀기도 했다. 둘째 날 아침 8시에 호텔에서 출발하여 마야 문명을

느껴볼 수 있는 치첸이사를 보며 숙연함을 느꼈다. 다음 행선지는 지표면의 석회암층이 함몰되어 그 속에 지하수나 빗물이 고인 함몰공인 세노테로 고고성!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자연의 신비로움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졌다.

여행을 다녀 볼 때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부모로서 감사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글_ 애틀랜타 전등사 신도 안철희 거사

부처님오신날 세계의 풍경

방글라데시, 종교 편향적인 급진파 경계 필요

다카, 방글라데시 - 압둘 하미드(Abdul Hamid)대통령은 급진적이고 편향적인 종교인들을 반대하고, 기존 공동체와의 조화로 온 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UNB는 보도하였다.

“급진적이고 편향적인 종교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보통사람이라면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에 반대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편향적인 종교인들을 계속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방가바반(Bangabhaban)에서 진행된 지역 최대 불교 축제인 부처님오신날 사전행사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은 말했다. 압둘 하미드 대통령은 불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 문화, 사회, 경제 분야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나라 곳곳에 다양한 고대 유적지가 발견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사전 행사에 정부 부처 장관들과 미얀마, 부탄,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의 외교사절, 국제 협력단체, 주요 불교 단체들이 참석했



으며,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열반 등을 주제로 하여 사찰 및 각 불교 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행해졌다.

행사의 시작은 새벽에 국기와 불교 깃발을 사찰에 게양하고 불교경전을 읽으며 시작하였다. 신자들은 부처님께 과일, 꽃, 초 등을 공양 올리고, 사부대중을 위한 부처님의 일대기를 說法했으며, 불경 암송, 그룹 명상, 행렬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방글라데시 라디오 및 TV 등은 특별 방송을 방영하였고, 각종 단체의 특별기 고문이 발표 되었다.

The Financial Express [2013. 5. 24]

뉴질랜드, 불교 축제가 고유문화 계승에 도움

뉴 플리머스, 뉴질랜드 - 뉴 플리머스 스리랑카인 종교 문화 축제인 부처님오신날 축하 행사가 토요일 거행 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은 힌두교의 디왈리(Diwali), 이슬람교의 라마단(Ramadan)과 유사한 축제라고 행사 주관자 라마타 페르난도는 설명했다.



“고국을 떠나 타 지역에서의 삶은 고독하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로 축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뉴 플리머스에는 불교 사원이 없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문화, 종교와 모국어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향수를 달래고 고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이 다양한 문화와 불교 전통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우리 문화와 음식을 즐길 수 있어 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페르난도는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축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annah Fleming, Stuff.co.nz [2013. 5. 20]

말레이시아, 부처님오신날 奉祝

쿠알라 룸푸르, 말레이시아 -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하여 금요일 마하비하라(스리랑카 남방 불교의 중요 사원)를 방문한 불교신자들은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열반을 봉축하며 꽃과 초 등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드렸다.

또한, 탐분(Tambun)지역의 ‘깨달음 마음’ 불교 사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대 괘불이 펼쳐져있다. 수백 명의 불교 신자들이



괘불을 펼치는 행사는 이 사찰의 전통적인 수행 행사로 60m x 12m의 괘불 아래를 달리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한다고 한다.

한편, 페탈 링 자야(Petaling Jaya)시 고문 임 키트 시양은 인종 정치를 끝내고 급증하고 있는 양극화를 완화시키라는 메시지를 부처님오신날 라집 툰 라잡 수상을 비롯한 각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수상은 사회 계층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원활한 사회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연설했다. 또한, “부처님 말씀을 진실로 따르며 고귀한 삶을 유지하고 자애심으로 인류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의 뜻을 기리는 것이다”라며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dmund Ngo, Beh Yuen Hui and Qishn Tariq, The Star [2013.5.24]

대만 불광산사, 색다른 봉축 행사

한국에는 부처님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한 연등회가 있는가 하면 대만에는 신(神)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께 ‘생일 축하’를 올리는 색다른 봉축 행사가 있다.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대만 불광산사 불타기념관에서 ‘神明朝山(神明朝山)’ 행사가 봉행되었다. 대만 각지에서 온 188분의 신들과 3000여 명의 신도들이 불광산사에서 모여 관불 의식에 동참하고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였다.

대만 인구 중에 불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토속신앙이나 도교에서 유래된 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다. 독실한 불자가 아닌 일반 대만인들은 절을 다니면서도 이 신들을 모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국인의 정신세계에서는 이 신들이 매우 훌륭한 존재이지만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에 비하면 아직도 수행을 더 해야 할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행사도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신들은 전통 취타대, 유희단과 신도들의 ‘호송’ 아래 불광산사에 도착했다. 신임 주지 심보(心



保) 스님의 집전으로 불광산 총림학원과 보문중고등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신도들의 헌공으로 시작되었다.

불광산사 창립자인 성운(聖雲) 큰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번 법회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세계 각국이 유엔(UN)에서 모이듯이 전국 도교 사원의 신들도 절에 와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신들이 부처님을 만형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앞으로 매년 4월 초파일에 마치 부처님께서 회의를 소집하듯 다들 여기 모여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한 신을 소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선행을 닦아 신선(神仙)이 되었으니 우리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하다”면서 도교 신선들과 불교의 인연을 소개하였다.

대만 불교계, 특히 인간불교를 포교 및 수행 이념으로 삼는 불광산, 법고산 등 규모가 큰 종단에서는 비(非)불교적인 요소들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해왔다. 절에서 부적을 나눠주거나 스님이 신도들의 사주팔자를 봐주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찰에서 산신과 칠성을 모시는 것처럼 불광산사에서 도교나 토속신앙의 신들을 불교의 호법신으로 포용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종종 보였다. 이번 행사는 신들을 부처님오신날 법회에 동참시킴으로써 토속신앙의 신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종교간 화합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글, 소영녕

캄보디아, 부처님오신날 풍경

칸달, 캄보디아 - 부처님오신날 금요일 수 천 명의 불교 승려와 신자들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프레이 리아체 트랩산(Preach Reach Trap)을 순례했다. 매해 열리는 행사에는 각 종파의 수장들과 정부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다. 봉축 행사는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로서 전통을 유지하고 불교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정부 관리가 전하였다.

해마다 참석하는 불자인 탑 피치(72세)는 “불자인 저에게 부처님오신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저희 가족은 모두 불자이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의례에 가족 모두

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불교는 이 나라의 국가 종교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4,400여 개의 불교사찰(Pagodas)과 5만여 명의 스님이 출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Xinhua [2013. 5. 24]



태국, 불교 사원 건립 위한 기금 마련 법요식

파타야, 태국 - 사하(Saha)그룹의 반 수와다키(Ban Sukhawadee)재단과 프라 와이 차이아폼(Phra Yai Chaiyaphum)재단은 태국 북동부에 불교사원 건립을 위한 200억 바트 기금 마련 법요식을 거행했다.

사하 그룹 대표는 5월 10일 파타야의 화려한 맨션 반 수와다키에서 반글라몽(Banglamung)지역 정부 요인 및 프라 와이 차이아폼 재단 대표가 모여 태국 북동부 차이아폼에 세계최대 규모의 불상 및 관광 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 불사를 약속하고 건축 불사금 보시를 했다. 200억 바트 프로젝트는 부처님의 500生 傳記, 사찰과 탑, 세계 각국



의 불교 유적지 모형, 2,500석 규모 법당, 불교 조형물, 1,000대 규모의 주차장, 인공 폭포, 스님과 내방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이 들어 설 예정이며 연내 건축이 시작된다고 한다.

Thanachot Anuwat [2013. 5. 24]

MBA 학위 스님 일본 사찰 활성화 방법 모색

도쿄, 일본 - 증권 경력의 직장인이 경영학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MBA 과정은 문제를 현실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균형적 판단을 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케이슈케 마츠모토 스님(Keisuke Matsumoto)이 2010년 하이데라바드 인도 비즈니스 스쿨(ISB, Indian School of Business)에 입학하게 된 동기이다.

동경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마츠모토 스님(33세)은 동경의 코모지 사찰로 7년 전에 출가했지만, 마케팅과 전략 중심의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요즘 비영리 단체와 병원 등의 많은 사람이 MBA를 공부한다. 여러 조직을 경영 관리 할 수 있어 MBA는 굉장히 유효한 공부다.”고 스님은 설명했다. “일본 불교사찰 ‘오테라(Otera)’는 지역 사회의 중심에 있었으나 이젠 더 이상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꾸고 싶다. MBA가 오테라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테라는 한때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공

동의 장소였으나 현재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장소로만 활용되고 있다. 시내 중심에 있는 사찰을 사람들은 보수적인 장소로 생각하여 왕래가 적은 편이었다. 스님은 이러한 무거움 선입견에서 벗어나고자 불교와 사찰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불자들을 모아 청년 연합회를 만들었다.

사찰 음악회, 요가 교실, 무료 사찰 카페 같은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에게 열린 사찰을 제공하여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사업과 사찰의 공통분모를 찾기는 어렵다.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사찰은 그 반대이지만 이 둘 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사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보시이다. 오테라는 불교의 중심에 있고 또한 포교의 한 부분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마음 수행을 돕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대학을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저는 인도를 사랑하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인 ISB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하였다.



마츠모토 스님은 항상 사찰과 변화하는 세상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 승려가 되는 과정을 처음으로 ‘블로그’를 통해 안내한 최초의 승려이며, 일본 최초의 ‘온라인 사찰’을 만들어 접속만으로 심신의 안정과 정화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 사찰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다. 세계가 변화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마츠모토 스님은 불교가 이전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불교는 과학적이다. 그래서 분석하고 마음을培養 할 수 있다. 가치 체계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되는 현재 세계 환경에서는 금전적 추구 보다는 인간의 마음에 중점을 둔 불교가 다음 세대 가치 시스템 구축에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스님은 ‘경제와 불교’ 관련하여 현행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의 영향을 연구 중이다.

MBA 학위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는가? “고객 중심의 시각은 MBA에서 받은 교육 중 가장 큰 부분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 맞춰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MBA 학교의 교육 효과를 드러켜(Peter Ferdinand Drucke)의 말을 인용

하며 사찰은 반드시 변화된 매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찰 가치는 유형적 자산의 존재가 아닌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로 형성된 무형 자산으로 존재한다. 사찰은 사람들의 정신을 변경시키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마츠모토 스님은 사원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스쿨의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미 불교 승려들을 위한 ‘경영 학교’를 설립하고 올해 100여 명의 승려가 여가서 공부하고 있다. ‘경영 학교’ 설립 이후, 강력한 스님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년 이내에 경영 교육을 받은 스님들의 지역사찰이 일본 전역에 200여 개가 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사찰과 지역 주민의 유대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싶다. 이것이 저의 미래 비전이다”라고 하였다.

“저는 ISB에서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매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캠퍼스 안과 밖에서 인도인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열려있고 친절하다. 가족들 간의 강한 유대감에 깊은 감동을 하였다.”라고 말했다. 경영학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기업 형태의 사찰 운영 방식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Riyanka Sangani, ET [2013. 5. 3]

불교 교육이 감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콩, 중국 -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설립 목적이고 교육은 물론 지식의 移轉과 더불어 연구는 새로운 지식의 創造이다.

지식이 사람을 현명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이다 그러나 늘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방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에게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불행의 느낌은 억압된 생활과 기대와 결과의 괴리로부터 기인한다. 우리 대부분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감성지수 향상과 학문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인문학 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높은 EQ로 생활 속 스트레스를 원활히 조절하여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불교 교육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종교적 접근보다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불교에 관심을 두고 단순한 지식보다는 지혜를 찾고자 한다.

10년 전 홍콩 대학은 불교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불교 연구 프로그램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아 항상 신청이 초과 되었고 다양한 해외 지원자들이 지원하였다. 많은 졸업생이 고위 공무원, 변호사, 의사, 회사 중역 등의 고학력자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홍콩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스텐포드 대학의 중국 불교 석좌교수 설립을 위한 취임식에 참석했다. 불교 연구소 소장 폴 해리스 교수는 불교에 학생들이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승려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EQ를 향상 시키고 싶어 한다고 한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최고의 국제적인 대학에서도 같은 현상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를 응용한 이론적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대학은 응용 불교인 명상을 활용한 신경 과학, 산부인과, 마약 중독자 및 정신 질환자의 영향을 주제로 조사, 연구(박사 연구 포함)하고 있다. 같은 주제로 여러 학부와 교육적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홍콩은 늘 동·서양이 만나는 장소였고, 현재는 불교의 주요 종파인 상좌부 불교(Theravada),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가 만나는 장소이다. 여러 해 동안 종교를 초월하여 대화를 통한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불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좋은 예를 홍콩은 보여주고 있다.

Lee Chack-fan,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5.10]

▶ 리첵판 교수는 홍콩 대학의 전문인 평생 교육원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불교 사원의 큰 성장으로 와우와 토사로 이사

위스콘신, 미국 - 투 마이(Tu Mail)가 대표로 있는 불교 청소년 연합회가 1988년 밀워키로 이전할 때 15명이었던 신자가 지금은 150명이 넘는다.

초창기 밀워키에 거주할 때 15명의 신자와 함께 두 개의 침실방이 있는 작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최근 메이페어街에 교회로 사용했던 14,000평방피트의 유닛티 웨스트 교회(Unity West Church)를 사들여 이사할 예정이다. 프억 하우(Phuoc Hau) 불교 사원으로 새로 이름을 바꾸고 오는 6월 16일에 개원한다.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새로운 행사를 소개 홍보하고 매주 일요일 명상과 문화 강화를 개최하며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베트남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및 베트남 문화에 중점을 둔 강좌와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밀워키 남쪽 11번가 소규모 가정집 거실에서 예배하고 주방에서 예불 참석 불자들

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며 10년을 지내왔다. 점차 법회가 성장하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일요일 예불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1993년 기존 사용하던 가정집을 팔고 밀워키 16번가에 위치한 2,000평방피트의 오래된 학교로 이전을 했다. 일요일 예불에 많은 사람의 참석이 가능하였고 불교 공부 및 베트남 문화 강좌 운영과 신도들의 숙박이 쉬워졌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신자가 참여하면서 장소가 협소해졌고 새로운 장소를 찾던 중 유닛티 웨스트 교회(Unity West Church)를 \$625,000에 매수하게 되었다.

투 마이는 사찰의 성장 발전에 행복하다고 한다. “불교 신자들이 더 행복해지면서 점점 더 신자 수가 증가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삶을 위한 가피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Michael Runyon, Wauwatosa Today [2013. 5. 28]

네팔법당 용수사, 이주민 500명 이상 참여해 성대한 봉축행사 열어

지난 5월 19일 동두천 네팔법당 용수사는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봉축행사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봉축 법회는 계세 니마 타망 스님의 집전으로 열렸다. 한 시간 남짓 진행된 법회가 끝날 무렵 이주민들은 길게 줄을 서서 경건한 분위기에서 관복식을 치렀다. 용수사 옥상에서 맛있는 공양을 마친 네팔인들은 다시 용수사에 모여 내빈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축행사에는 카만 싱 타망 주한 네팔 대사를 비롯해 지난 5월 2일 입진각 '평화의 불' 행사차 한국을 방문 중인 네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내빈 중에는 락파 세르파넬 AV TV 뉴스 대표와 라메쉬 다말



(네팔 마운틴 TV 뉴스 대표)도 있었는데, 용수사 봉축의 생생한 장면을 TV 카메라에 담아갔다. <평화의 불> 행사 코디네이터 카필 라마는 "한국에 네팔인들을 위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지 깜짝 놀랐다. 주지 우르젠 스님을 비롯해 그간 노력해 주신 여러 스님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용수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다음으로 이주민들의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용수사를 가득 메운 이주민들은 네팔 가요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고, 추천권 추첨 및 시상을 끝으로 5시 30분경 모든 일정이 끝났다. 작년 결성한 용수사 네팔인 신도회 YBA SEWA



KENDRA 회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행사 내용이 매우 짜임새 있었다는 평도 많았다.

500여 명의 네팔인들이 참여해 성대하게 치러진 이번 행사로 용수사는 한층 성숙하고 발전한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한국YBA 02-6141-1034

봄바람, 신바람 다문화 백일장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스님)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봄바람, 신바람 다문화 백일장」을 열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아이 또는 선생님에게 쓰는 편지, 이런 내 모습이 좋아요,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



고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로 가족애를 표현했으며 효동어린이집과 함께하는 동요 교실과 동극 '방귀 시험'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어 교육 수강생들은 각자 자기의 실력대로 한국어로 가족 사랑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대상을 받은 당티검떠멘(베트남 20세)은 미래의 자녀에게 쓴 편지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이번 백일장에는 김천지역 결혼이주민,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대상자와 방문교육 대상자 등 많이 사람이 참여하여 다문화가족 간의 우애와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439-8280

◀ 선생님께 쓴 편지를 낭독하는 참가자

캄보디아 친선교류의 날 열려

지난 6월 2일, 서울시 구로구민회관에는 평소와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캄보디아인들이 무려 천여 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이날은 "캄보디아 친선교류의 날"로 전국에 있는 2만 4천여 명의 캄보디아인들 중 약 7%가 이날 행사에 참가했다. 대강당의 규모는 1, 2층 합쳐 545석으로 꽤 큰 규모지만 전국에서 모인 인원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좌석과 좌석 사이, 계단은 물론이고 한 치의 틈도 없이 행사장을 빼곡히 메웠다.

이날 친선교류의 날은 한국을 방문 중인 캄보디아 야당 대표인사와의 만남과 재한 캄보디아인들의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1시에 시작이지만 이미 11시부터 많은 사람이 행사장에 와서 기다리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모든 참가인이 웃고 또 울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스님과 여러 귀빈을 맞는 모습은 마치 19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

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을 환호하는 모습을 방불케 했다. 행사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캄보디아 야당 대표인 섭랑시, 라디오방송국 대표 이아 잔나를 포함한 유력인사들이 직접 캄보디아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특별히 참석하였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캄보디아 근로자, 결혼이민 여성의 삶 이야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여러 캄보디아 공동체의 각 대표는 한마음 한 뜻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며,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 많았는가를 생각한다면 이날 4시간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행사의 마지막은 항상 아쉽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또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중심에는 항상 캄보디아 불교센터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캄보디아 불교센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마주협 사무국 02-720-7095

이주민과 함께하는 무차대회에 모십니다!

140만 이주민의 시대,
이주민들을 모셔서 사부대중이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주제 1 '우리 힐링해요'

영상을 통해 본 이주민의 삶
이주민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한다 '토크쇼'
이주민들의 마음에 평안을 '힐링명상'
불교 이주민인권 선언

주제 2

다 함께 부처로 살자 '비빔밥 400인분 만들기'
저녁공양
희망의 서원 쓰기
각국 전통 공연
단주 나누기와 기도실 나누기

부대행사

이주민무차대회 주간 6월 24일 ~ 6월 30일 조계사 경내
각국의 생활과 불교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부스
서원의 탐에 서원을 담기
이주민의 삶과 희망을 담은 사진전
이주민 법당 후원을 위한 모금활동

▶ 일시 : 6월 30일(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조계사

▶ 대상 : 태국,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등 이주민 불자 300여 명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무차대회 사진 공모전 모집

■ 사진공모 주제 : 이주민의 눈물·꿈 그리고 희망

■ 작품제출 : bdmigrant@gmail.com

메일제목에 [사진공모] 표기 바람

■ 작품규격 : 2,000×3,000픽셀 이상의 jpg형식

■ 응모기간 : 6월 19일까지

■ 선정내용 : 우수작품 중 20여 편 조계사 경내 전시
(6월 24일 ~ 6월 30일)

※ 우수작품 중 5작품 선정, 무차대회에서 시상 및 상장 수여

■ 문 의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